



직거래장터로 변신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지역 농특산물 '슈퍼오닝' 쌀, 과일 등 판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평택시 우수 농특산물을 거래하는 직거래 장터가 지난 9월 13~14일 8천여 명의 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30여 농가, 단체, 송탄 농협 등이 참여한 직거래장터에서는 엄격한 재배, 품질 기준을 통과한 '슈퍼오닝' 쌀, 과일, 채소 같은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슈퍼오닝'은 평택시 농특산물의 통합브랜드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삼성전자 DS 부문 기획팀 강창진 팀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했다.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거래장터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부터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을 사내 식당의 식재료로 지속해서 확대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평택시 오성면에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그동안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렇게 설렌 적은 없다"며 "삼성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관내 입주기업, 평택상공회의소와 다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전자 직거래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평택시 슈퍼오닝 농·특산물은 농업 관련 박람회, 직거래장터 등에서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슈퍼오닝 판로확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 하나의 선택

만족, 그 이상의 스피드와 신뢰성

더욱 많은 공간과 더욱 빠른 스피드까지. 다양한 용량과 최대 100/90 MB/s에 달하는 빠른 읽기/쓰기 속도, 확장된 호환성으로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완벽하게 저장하고 모든 콘텐츠를 한번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능과 신뢰성까지 겸비한 EVO Plus로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저장해 보세요.

